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치매가구 현장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시본부(본부장 배승균)는 지난 26일 나주시 용산주공아파트 내 타이머폭 설치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점검은 전남광역시치매센터, 주택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타이머폭 설치 상태뿐 아니라 보일러 등 사고위험이 있는 가스시설 이상유무도 함께 확인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시본부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치매가구에 가스안전기기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광주·전남지역의 장애인, 치매, 노령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00개의 타이머폭을 무상보급하고 있다.

배승균 광주광역시본부장은 “타이머폭은 시간이 지나면 가스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치매가구 가스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치매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전남지역 치매가구에 대한 가스안전 복지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전남대병원에 후원

제25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상원 (주)다스코 대표가 전남대학교병원에 발전후원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한 회장은 이번 기탁을 포함해 전남대병원엔 총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지난 28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정신병원장과 윤경철 진료부원장, 김영민 사무국장, 주성필 기획조정실장, 정숙인 교육수련실장, 한재영 대외협력실장 등 병원 관계자와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박철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구제길 세종요양병원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

한 회장은 “전남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지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새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교통공사, 어린이 여름방학 특별전학

광주교통공사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용산차량기지의 시설물을 견학·체험하는 여름방학 특별전학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특별전학은 오는 8월13일 열릴 예정으로 5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 30명과 그 가족(동반 보호자)을 대상으로 한다.

행사는 도시철도 기관사 체험, 물소화기 체험, 전동차 검사견학, 대중교통 안전 교육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 지역 문화예술단체 파인데이엔터테인먼트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매직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공사 블로그(blog.naver.com/grtc)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선착순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문화홍보팀(062-604-81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준명 기자**



광주시, 폭염 대비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광주시는 29일 자율방재단연합회, 북구청 등과 함께 말바우시장과 우산근린공원에서 ‘폭염 대비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캠페인은 연일 폭염으로 온열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에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광주시는 얼음물, 미숫가루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증세가 심하면 신속히 119급급대로 연락하도록 안내했다.

신민석 자연재난과장은 “야외 근로자나 노약자 등은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노병하 기자**



중흥그룹, ‘사랑의 헌혈 캠페인’ 전개

중흥그룹이 29일 중흥건설 본사 앞에서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헌혈 수급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중흥그룹 계열 중 흥건설, 중흥토건 등 소속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22년 중흥그룹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헌혈 캠페인을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씩 진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헌혈 캠페인에 참여한 중흥건설 관계자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최근 헌혈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조금이나마 혈액 수급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뜻깊고 보람차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 서부경찰, 청소년비행 대책협의회

광주 서부경찰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보호계는 지난 25일 서부서 치평홀에서 청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청소년비행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청소년 비행 대책 협의회’는 장명본 서부경찰서장을 비롯해 여성청소년과장,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경찰관과 외부위원인 김용원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정미화 참사랑문화교육진흥협회장 등 유관기관 단체 대표 등 11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청소년 절도범 재범 방지와 청소년 도박 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원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하반기에는 교육청 주관으로 여러 유관기관 협력단체들을 초청해 대규모의 비행대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청소년 비행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스키즈, 美 ‘빌보드 200’ 5연속 1위… 지민 2연속 2위

대세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스키즈·사진)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다섯 번째 정상에 등극했다.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은 ‘빌보드 200’에서 두 앨범 연속 2위를 차지했다. ‘빌보드 200’ 1·2위를 K팝 앨범이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일(현지시간) 빌보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가 지난 19일 발매한 미니 9집 ‘에이트(ATE)’는 23만2000장 상당의 판매량으로 8월3일 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스트레이 키즈의 전통적인 앨범 판매량은 올해 미국 내 K팝 앨범 중 최고다.

특히 스트레이 키즈는 28개월 동안 ‘빌보드 200’ 진입부터 다섯 앨범을 연속해서 정상에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앞서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 2022년 3월 미니6집 ‘오디너리(ODDINARY)’, 같은 해 10월 미니 7집 ‘맥시던트

(MAXIDENT)’, 작년 6월 정규 3집 ‘★★★★★(5-STAR)’(파이브스타), 그 해 11월 미니 8집 ‘락스타(樂STAR)’로 각각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 앞서 ‘빌보드 200’ 진입부터 다섯 장의 앨범을 1위에 올린 가수는 지난 1998~2003년 래퍼 DMX이었다. DMX와 같은 기록을 세운 그룹은 이번 스트레이 키즈가 처음이다.

지민의 ‘뮤즈’ 이번 주 판매량은 9만 6000장이다. 물리적인 판매량은 7만 4000장, SEA는 1만5000장, TEA는 7000장이다.

지민이 지난해 발매한 솔로 1집 ‘페이스’가 기록한 순위와 같다. 2위는 지민 등이 기록한 해당 차트 K팝 솔로 최고 순위다. 슈가 ‘디 데이’·뷔 ‘레이 오버’·정국 ‘골든’ 등 방탄소년단 다른 멤버들의 솔로 앨범도 2위를 차지했다.

두 앨범을 연속해서 ‘빌보드 200’ 2위에 올린 건 지민이 처음이다.

뉴시스

‘영웅’, 스크린으로 본다… 내달 21일 메가박스 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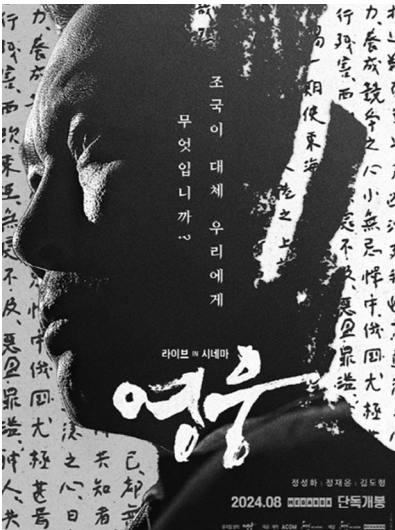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그린 뮤지컬 ‘영웅’의 실황 영화 ‘영웅:라이브인 시네마’가 오는 8월21일 메가박스에서 단독 개봉한다. (사진)

제작사 위즈온센은 29일 ‘영웅:라이브인 시네마’ 개봉을 확정하고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에는 초연부터 안중근을 연기한 배우 정성화가 출연한다. 이토 히로부미 역은 김도형이, 명성황후의 마지막 궁녀로 이토에게 복수를 하려는 설희 역은 정재은이 연기한다. 독립군 유동하 역은 임규형이 맡았다.

‘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그린 창작 뮤지컬이다. 안 의사가 동지들과 독립운동을 결의하고 1909년 2월부터 사형선고를 받고 뤼순감옥에서 순국한 1910년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2009년 안 의사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초연했고 더 뮤지컬 어워즈와



한국뮤지컬대상에서 각 6관왕을 차지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국내 창작뮤지컬로는 ‘명성황후’에 이어 두 번째로 누적 관객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2022년에는 윤제균 감독의 동명 국영화로 만들어졌다. **뉴시스**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일정 공개… “남은 혼 태울 것”

가요계 은퇴를 시사한 ‘가황(歌皇)’ 나훈아(사진)가 올해 하반기 콘서트 일정을 공개했다.

29일 소속사 예아라 예소리는 나훈아의 ‘2024 고마웠습니다 - 라스트 콘서트’ 하반기 공연 일정을 발표하면서 나훈아의 편지를 전했다.

편지에서 나훈아는 “평생 걸어온 길의 끝이 보이는 마지막 공연에 남아있는 혼을 모두 태우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원섭섭할 줄 알았는데, 시원하지도 서운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마웠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소속사 측이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나훈아는 오는 10월 12일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을 시작으로 공연을 펼친다. 10월 26일 강릉 카톨릭관동대학교 체육관, 11월 2일 안동 체육관, 11월 16일 진주 실내체육관, 11월 23일 광주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 12월 7~8일 대구 엑스코, 12월 14~15일 부산 벡스코를 돈다. 마지막 서울 공연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뉴시스